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유수동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56년
면담자	조연희	**소 속**	학산문화원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1		**면담지원**	송미정		
면담 일시	2025 년 8 월 20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20분 26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구술자 유수동은 1956년 인천에서 태어나 두 살 무렵부터 수봉산 일대 한 집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미추홀 지역의 변화를 생활 속에서 체감해 온 인물이다. 1983년 인천상공회의소에 입사해 약 40년간 근무하며 조사과를 비롯한 현장 업무를 통해 인천의 산업과 경제 흐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1980년대 상공회의소가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었고, 남동공단 조성과 같은 핵심 사업을 통해 인천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회고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인천이 대외 교역과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경제단체와 지원기관의 역할이 세분되었고,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을 동북아 허브 도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동양화학(OCI)과 이회림·이수영 회장의 리더십을 통해 기업의 지역 공헌과 국제화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증언하며, 제조업 기반이 사라지고 주거만 남는 도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기업이 고용과 세금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기업과 지역이 공존하며 균형 있게 성장하는 도시의 미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색인어	동양제철화학, 학익동, 용현동, 도시변화, 통계·보고서, 첫월급, 국제통상, 인천객주회, 1992 한중수교, 경제단체 분화, 남동공단, 특별법, 남동염전, 이회림, 송암미술관, 지역기부, 이수영, 투자유치, 정주여건, 송도·청라·영종, 국제화, Cacci(카시), 대한상의, 박용성, 경총, 노사관계, 제조업 전환, 도심화, 공장부지 활용, OCI, 군산공장, DCRE,환경규제, 폐석회, 오염정화, 개발지연, 환경단체, 행정절차, 기부채납, 기업부담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근황 및 개인 신상 - 퇴임 후 남구 목공센터에서 서각 활동 시작, 학산문화원 동아리 결성·정기모임 참여. - 1956년생, 인천 출생. 출생지는 중구로 추정하나 두 살 때 현재	00:00:40 ~ 00:03:40	

거주지로 이주, 수봉산 아래 집에서 70년 거주. - 구술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상의) 근무 경력 기반으로 기업 관련 경험을 말할 수 있다고 판단. - 소개자: 이창훈 부장 언급.		
2. 인천상공회의소에 입사하다	00:03:41 ~ 00:11:16	
- 1983년 상의 입사('입소' 표현), 약 40년 근무. - 1980년대 상의 직원 규모: 80~90명, 최대 약 90명 수준. - 당시 경제단체가 많지 않아 법정 종합경제단체로서 위상 높음. - 상의 역할: 기업 · 산업 · 실물경제 지원,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 - 첫 월급: 1983년 3월, 26~27만 원 - 첫 부서/업무: 조사과, 8~9년 수행. 생산 · 출하 · 고용 · 가동률 등 기업 기초데이터 조사 · 분석. - 전공: 국제통상(상대), 업무와 연관.		
3. 중국과의 수교 및 인천의 발전	00:11:17 ~ 00:18:06	
- 상의 설립 역사 언급: 1885년(인천 객주회 효시), 전국 최초급 역사성 강조.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인천이 비즈니스 거점으로 주목받으며 변화 가속. - 기존엔 상의가 광범위하게 담당하던 업무가, 수교 이후 코트라 · 무역협회 · 금융 · 건설 등 분야별 기관/단체가 인천에 브랜치 · 현장기능 확대하며 분산. - 과거 대만과의 관계(단교), 화교사회 반응 등 전환기의 아픔도 언급. - 중국 수요가 인천 발전의 큰 동력이라는 인식.		
4. 80~90년대를 견인했던 대표 사업	00:18:07 ~ 00:27:53	
- 1980년대: 영세 · 무허가 공장 난립, 기업 · 주민 모두 어려움 → 공단 조성 요구. - 수도권 규제(공단 · 대학 · 병원 등 제한)로 난항, 대통령 인천 방문 시 기업인 건의 → 특별법으로 남동공단(약 500만 평) 조성. - 남동염전 매립, 현재 대규모 기업 집적(수천 개로 추정) 언급. - 1990년대~2000년대 초 전환점: 인천국제공항 건설(영종 · 용유 매립, 연결 인프라 필요). - 경제자유구역(송도 · 청라 · 영종):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강조. - 연결 인프라: 영종대교, 인천대교, 향후 청라 연결 언급. - 인천을 동북아 허브도시(홍콩 · 싱가포르 · 상하이급)로 키우려는 기대감, 역대 시장들의 추진 흐름 언급.		
5. 동양화학 이회림 회장 이야기	00:27:52 ~	

- 이회림 회장: 대기업 총수가 지방 상의 회장직을 맡은 점의 의미 강조. 남동공단 조성 과정에서 영향력. - 소탈한 태도: 직원들과 거리감 없이 연수 · 식사 자리 동행. - 포천 창수연수원에서 직원 연수 진행, 회장도 참석해 교류. - 남동회관 건립 재정 토대: 불로동 농장 부지 매입(1980년) → 개발로 수용/매각(약 100억 추정) → 남동회관 건립 재원으로 연결된 일화. - 경영 철학: “월급 타면 쌀 한 가마니” 비유(절약 · 가족 생계 우선), 건강관리(눈 맨발 걷기), 예술 조예(송암미술관 기부) 언급. - 개성상인 계보, 태평양화학 · 신도리코 · 동양화학 등과 함께 언급.	00:38:07	
6. 아버지 뒤를 이은 이수영 회장 이야기 - 이회림 퇴임 후 동양화학이 제철화학 인수 → 동양제철화학으로 확대, 이후 아들 이수영 회장(2000년) 상의 회장 취임. - 단체 위상은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 제시(경제단체 리더십의 상징성). - 2000년대 과제: 좋은 기업 · 외국인 투자 유치, 인천의 국제경쟁력 홍보. - 송도 개발 초기 비판 → 정주여건(SOC: 병원 · 교육 · 문화 · 공원 등) 균형 중요성 강조. - 국제 활동: Cacci(카시) 아태 상공회의소 기구 회장직 수행(약 2003년 추정), 당시 구술자는 경제부장으로 수행. - 2004년 이수영 회장, 경총 회장 제안 수락(노사관계 이슈로 기피되는 자리라는 설명) → 부자 회장 시대 종료.	00:38:08 ~ 00:52:03	
7. 제조업 기반의 변화 - OCI(동양제철화학) 변화, 공장부지(약 50만 평) 활용 문제. - 폴리실리콘 경쟁력/공장 역할 변화, 군산 공장 비중 확대 추정. - 개발 법인 DCRE 등장 배경: 부지 활용 · 수익성, 도심화로 공장 부지가 중심지에 편입되며 개발 압력 증가. - 세제 이슈로 위기 → 소송(1 · 2심) 언급 후 개발 진행.	00:52:04 ~ 00:55:36	
8. 동양화학의 지역 상생 노력과 한계 - 기업이 겪은 가장 큰 이슈로 환경 문제(폐석회 처리) 지목. - 해외에선 활용 가능하나 국내는 폐기물 처리로 비용 증가, 기준의 엄격함 문제 제기. - 개발부지의 오염 문제를 환경단체가 강하게 제기 → 행정도 민감하게 반응 → 개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 - 기부채납(뮤지엄파크 등)도 기업 부담으로 언급. - 규제(중대재해법 · 노란봉투법 등)를 예로 들며 기업의 체감 부담 강조.	00:55:37 ~ 01:03:02	
9. 동양화학(인천공장)의 지역경제 · 산업적 의미	01:03:03	

- 불모지에 가까웠던 시기부터 화학공장으로 자리 잡아 고용·산업 발전의 리더 역할. - 인천은 제조업 기반 도시이며, 동양/OCI는 그 중심축 중 하나로 평가. - 부자(父子) 회장 봉사는 상공계에 잊을 수 없는 공헌. - 화학기업 특성상 대중적 주목은 낮지만, 지역 내 기업 이미지·평판은 “좋은 회사”로 기억된다는 언급.	~ 01:06:33	
10. 마무리 소감 및 기록 활용 기대		
- 인터뷰 목적을 완전히 인지하진 못했으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했다는 입장. - 용현동~학익동 일대 과거 대규모 공장지대 회고: 동양화학, 대우전자, 부국사료, 한농(한국농약), 동일방직·한일방직·한국강관 등. - 공장지대가 도심화로 이전·철수하고 아파트로 전환되는 흐름 설명. - 주장: 주거만으로는 한계, 기업(생산기능)과의 혼재·공존이 지역 생태계에 필수. -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편견/규제 중심)에 아쉬움 표출. 기업은 목숨 걸고 하는 생존게임이라는 관점 제시. - 추가 에피소드: 창수연수원에서 이회림 회장이 셔츠를 바지에 넣지 않고 소탈하게 입은 모습, 술 중심의 당시 회식문화, 연수원 애장품 설명 등.	01:06:34 ~ 01:20:26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